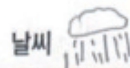




신지원 초등학교 4학년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지구 위해 착한 행동하면 보상"...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시행 (뉴스1)

기후행동 실천시 지역화폐 보상... 연 최대 6만원

최대호 기자
2024.07.11 오후 3:07



기후행동 기회소득 홍보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후 행동 기회 소득'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인 기후 행동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보상하는 정책으로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 돌봄 기회 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전용 앱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면 그 보상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 행동 실천'은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 제고 등 4개 분야에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건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 음식 대화용기 이용 △다회용 컵 알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즐거움·플로깅 참여 △기후 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다양성 탐사 △소통이다.





신지원 초등학교 4학년

2024 년 7 월 11 일 목요일

날씨 ☁️🌧️

도는 이를 통해 도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의 리워드를 지급한다는 계획(2024년은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 원 한도 내 지급)이다.

리워드는 적립 다음 달 중순 지역화폐로 전환된다. 도는 향후 적립 리워드를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사업엔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앱을 내려받아 회원으로 가입한 후 기후 행동을 실천하면 된다.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앱은 데이터 자동 연계를 통해 기후 행동 실천 인증을 위한 촬영·업로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친환경 운전 활동은 T맵 점수, 대중교통 이용은 수도권 교통카드사의 실적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인증 없이 자동 적립된다. 또 걷기 활동은 하루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적립된다.

sun0701@news1.kr

기사를 봤더니 경기도에서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 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사업이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인 기후 행동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보상 하는 정책으로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미·아동 돌봄기회 소득과 더불어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전용 앱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면 그 보상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좋은 일을 해서 지역 화폐를 받으면 환경도 지키고 기분도 좋으니 우리 양반들도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대화용기 이용, 대화용컵 활용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중량·플라스틱 참여, 기후 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소등이다.

좀 힘든 것 까지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있어서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어서 시도해 볼 만도 하다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사업엔 7세 이상 참여가 가능했다. 7세 부터 가능하니 내 동생도 같이 환경을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환경 운전 활동은 T맵 점수, 대중교통 이용은 수도권 교통카드의 실적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인증없이 자동 적립된다 또 걷기 활동은 하루 한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적립된다.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데 동참하면 지극히 더 깨끗해 질 수 있을 것이고 보상도 좀 있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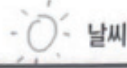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안 남기기, 보일러 조금만 켜지 않게 제대로 하기, 안쓰는 전기는 끄기, 물 아끼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등 이렇게 실천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사람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조금씩 실천을 늘려가는 노력을 해야 겠다.





신지원 초등학교 4학년

2024년 7월 21일 일요일



단편3_ 어쩌면 우리의 바다는

- 하물아웃 Haulout
- 고등어와 바다 그리고 순회 Under the Sea
- 사람들은 왜 바다를 보러갈까 Why Would People See the Sea?

2024. 07. 21 (일) 16:30 PM | 영도 피아크 B1F

Seat Number.

2024 국제해양 영화제

Korea International Ocean Film Festival KIOFF

7.19일 - 7.21일

영도 피아크 6F, B1F

오늘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영도 피아크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 영화제를 보러 갔다. 영화제 중에서 단편 영화 3편을 연속해서 상영하는 편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그편이 환경과 관련있는 내용이었다.

첫번째 영화는 하물아웃이었다. 하물아웃은 생물학자가 나온다. 이 생물학자는 바다코끼리의 태어남을 관찰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북극 해안가에 오두막을 짓고 지내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안가는 10만마리의 바다 코끼리로 가득하게 된다.

바다코끼리가 하물아웃에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온 이유는 지반난 화로 인해 뱀이 놓아서 바다코끼리가 살 곳, 쉼 곳 등이 사라져 해안가 거지 와 바뀐 것이다.

두번째 해안가에 10만마리 바다코끼리가 물리니까 안사당리까지 하고 그 중에는 해안가로 물리오지 못한 바다코끼리도 있었다. 그리고 바다 코끼리가 오두막에 들어 가지 않고 하자 오두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더니 바다코끼리는 인간의 오두막을 지켜 주었다. 인간 때문에 서식지를 잃은 바다코끼리가 인간의 두번째는 고등어와 바다 그리고 순회라는 영화다. 이제는 동물의 서식지가 아닌 인간의 서식지가 위험해 졌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물에 잠기는 마을이 되어 수명을 할 줄 아는 사람만 겨우 남고 수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을을 떠나야 했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 정이 든 순회는 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기 위해 수영장에서 연습하고 위험해도 실리어 바다에서도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했다. 그리고 겁에서도 수영하는 연습을 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는 우리 인간의 서식지도 파괴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날이 먼 미래겠지만 계속 이렇게 편한 삶으로만 살다가 우리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경험할 미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이 멸종하면 우리 인간도 언젠간 멸종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람찬 미래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답장이라도 동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그 바람찬 미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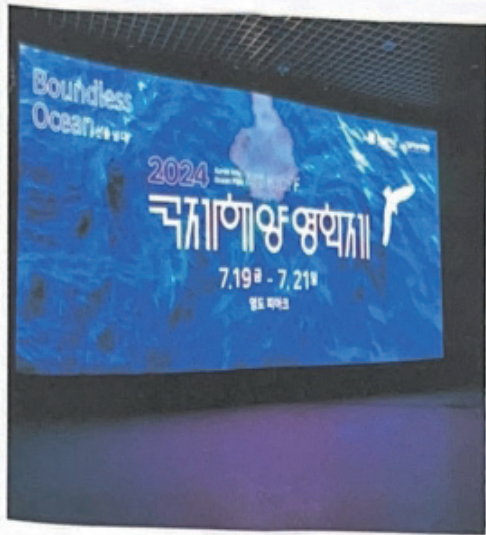




신지원 초등학교 4학년

2024년 7월 21일 일요일

☀-날씨



영화제를 보기위해 기다리는 우리 모습



장려상

신지원 초등학교 4학년



2024 년 7 월 22 일 월요일 날씨

어제 나는 친구들과 플로깅을 하러 바닷가에 갔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다. 나는 친구들과 쓰레기를 주러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손에 들고 플로깅을 시작했다. 그런데 쓰레기장이 어머어마 했다. 쓰레기를 주물수록 더 열심히 주었다. 그런데 어떤 어른이 자신의 쓰레기를 나한테 주었다. 자신의 쓰레기를 나한테 주니 나는 뭐가 어안이 병병했다. 미지 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줍는 쓰레기 중에서는 담배꽂이도 많이 나왔다. 나는 충격받았다. 깨끗한 바다가 갑자기 쓰레기장이 된 것 같았다. 심지어 음식을 쓰레기도 있었다. 음식을 쓰레기를 버린 사람한테 왜 버렸냐고 따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바닷가에서 동물들이 죽어가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다. 모래사장에는 쓰레기가 비가 내릴때 바다로 흘러가서 물고기가 죽는 것이다. 어찌하면 플로깅은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바다 동식물도 살릴 수 있는 두가지 활동일 수도 있다. 그리고 쓰레기를 주워서 학원에서 다시 분리수거를 하는데 바다에서 주운 쓰레기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나왔다. 그리고 고무줄, 갈뻬도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바닷가에 쓰레기통이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는지 생각해도 모르겠다. 다행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안되는게 더 많았다. 플라스틱 병 중에서는 음료수가 차있는 것도 있었다. 음료수가 차있는 병은 음료를 다 비우고 씻겨야 했다. 결국 우리가 가져온 쓰레기는 거의 재활용이 안되고 버리는 것들이 거의 정채였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바다를 계속 보려면 자신의 쓰레기는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 자신이 처리하지 않아도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렇게라도 실천해야 바다의 환경을 다시 되찾아서 즐겁게 해수욕 할 수 있다. 그렇게 플로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해줬으면 좋겠다.

플로깅 하고있는 나와 친구들의 모습



플로깅 하는 나의 모습



장려상

신지원 초등학교 4학년



2024 년 7 월 22 일 월요일 날씨 ☀



씻기전. 우리가 주유문 쓰레기



씻은후. 우리가 주유문 쓰레기 이정도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우리가 바다에서 가져온 많은 양의 쓰레기들.



그리고 비집가에 숨겨져 있던 담배꽂이



열심히 클리닝을 해서 주운 비집가에 있었던 쓰레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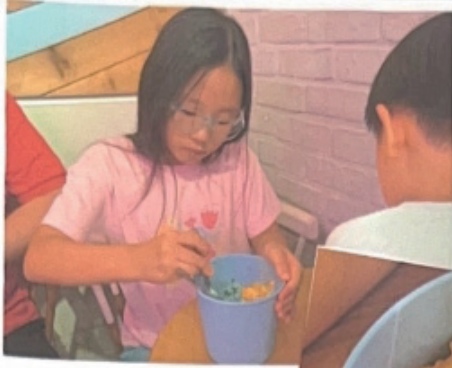
장려상

신지원 초등학교 4학년



2024년 8월 5일 월요일

☀ 날씨



아이스크림 다뤄용기 포장



김밥 다뤄용기 포장





2024 년 8 월 14 일 수요일



영주가흥초등학교 학생들이, 병뚜껑 기부로 지구를 푸르게

마경대 기자 kdma@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08-12 16:24:36 수정 2024-08-12 16:33:06

(매일 신문)



영주가흥초등학교 학생들이 플라스틱 병 뚜껑을 기부하고 있다. 이예환경센터 제공

경북 영주 가흥초등학교 학생들이 1만4천여 개의 플라스틱 병 뚜껑을 수집, 세척해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이하 미래환경센터)에 기부했다.

미래환경센터는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프레스스 플라스틱 운동(플라스틱 방앗간)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미니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해 플라스틱 키링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벌여 오고 있다.

김영무 미래환경센터 원장직무대행은 "지년해에 이어 올해도 1만4천개나 되는 플라스틱 뚜껑을 직접 수거, 세척해 기부해 준 영주가흥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사회 단원에서 건강한 자원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얼마전에 내가 다니는 중산초등학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병뚜껑을 모으는 행사를 했다. 그래서 중산초등학교

전교생이 병뚜껑을 줍는 행사에 참여했다. 뉴스를 찾아보니 우리와 같은 학교가 있었다. 경북 영주 가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1만4천여 개의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집, 세척해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이하 미래환경센터)에 기부했다고 했다. 우리는 병뚜껑을 모아서 치약짜개를 만드는 곳에 보냈다. 기사에서 나온 미래환경센터는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프레스스 플라스틱 운동(플라스틱 방앗간)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미니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플라스틱 키링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벌여 오고 있다. 경북에 있는 미래환경센터가 경남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병뚜껑이 버려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교도 이런 행사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조금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병뚜껑으로 업사이클링을 해보고 싶어서 병뚜껑을 녹여 키링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많은 병뚜껑이 키링으로 바뀌니 병뚜껑으로 키링만드는 가게가 많았으면 좋겠다. 병뚜껑으로 만드는 키링이 다른 재료로 키링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병뚜껑이 너무 작아서 버리기 잘 안되기 때문에 녹여서 다른걸 만들면 병뚜껑이 재활용이 될 수 있다. 만약 병뚜껑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가게가 있으면 병뚜껑을 모두 그 가게로 보낼 것이다. 나도 이렇게 병뚜껑으로 업사이클링을 해보니 쓰레기를 줄인 것 같아 뿌듯하다.



장려상



신지원 초등학교 4학년

2024 년 8 월 14 일 수요일 날씨



원래 병뚜껑의 색감새



병뚜껑을 누르는 나의 모습



누려진 병뚜껑의 색감새



누려진 병뚜껑에 도감을 짚는 나의 모습



완전 색감새를 짚어 도감의 모양도



!! 색감새로 완성된 병뚜껑!!

